

야만의 표상으로서의 여성 소수자들

- 『제국신문』에 나타난 첩, 무녀, 기생 담론을 중심으로

박애경*

차례

1. 들어가는 말
2. 신·구 문화의 접변과 근대전환기 여성담론의 전개
3. 계몽담론의 장(場)과 여성 소수자
4. 나오는 말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근대 전환기 (1894-1910) 계몽담론에서 여성이 배치되고, 위계화되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이 시기 대표적 계몽언론이었던 『제국신문』에 나타난 여성 소수자 관련 담론을 살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근대 전환기 계몽담론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었던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밝히고, 계몽담론이 여성 젠더 내부에서도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제국신문』에는 첩, 무녀, 기생과 삼패를 문명화에 역행하는 야만적 타자로 치부하는 논조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논조는 동 시대 언론인 『독립신문』이나 『황성신문』, 이후 창간된 『대한매일신보』와 공유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여성 소수자 집단에 대한 계몽언론의 시선은 풍속이나 섹슈얼리티를 규율과 개량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가 요구하는 국민화, 문명화 기획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일견 동일해 보이는 근대

* 연세대 국문과 조교수

화 기획 내부에도 젠더 간, 계층 간, 매체 간, 구 지식과 신 지식 간의 역동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여성 소수자 관련 담론은 전통적인 소수자 집단이 야만적 타자로 고착화되는 과정을 보여줄 뿐 아니라, 국민적 정체성이 여성 집단 간에도 상이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길항 관계를 고찰하는 데 적절한 사례를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담론의 분석을 통해 여성을 균질적인 집단으로 사유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여성 집단 내부의 차이를 응시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신·구가 혼재된 근대 전환기 담론의 중층성을 해명하는 데에도 단서를 제공해 주리라고 생각한다.

핵심어 : 제국신문, 계몽담론, 여성 교육, 문명과 야만, 여성 소수자, 국민

1. 들어가는 말

근대전환기¹⁾는 사회 각 부분에 걸쳐 전면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넘치던 계몽의 시대이자 총체적 변화의 시기였다. 갑오개혁으로 촉발된 소위 근대화, 문명화 운동의 초점은 봉건적 잔재 청산과 열강의 침략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강대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의 동향은 대외 인식을 포함한 정세 전반에 대한 통찰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서구 문명을 일방적으로 배척하던 전 시대의 태도에서 벗어나, 이를 본받아야 할 보편적 규범 내지 목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곧 조선을 지탱하던 중화주의적 세계관의 균열을 의미

1) 이 연구에서는 1894년 갑오개혁 이후 1910년 경술국치까지의 시기를 근대전환기로 보고자 한다. 이 시기는 근대를 지향하는 담론이 폭발적으로 분출했을 뿐 아니라, 청일전쟁의 결과에 따른 중화주의의 붕괴, 저널리즘 매체의 등장, 대한제국의 선포 등 ‘근대’를 향한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일본의 승리로 끝난 청일전쟁의 결과는 중화주의와 실질적으로 결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화주의적 세계관, 그를 배태했던 조선의 전통에 대한 부정과 회의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봉건왕조를 지탱해왔던 제도와 관습, 유교적 가치가 엄연히 잔존한 상태에서 변화한 시대와 대면하면서 이 시기는 신(新)과 구(舊), 개화와 완고의 문제가 어느 시기보다도 첨예하게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근대전환기는 구 질서와 이에 기반한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서구 문명(내지 서구화를 선점한 일본의 문명)을 표준으로 하는 지배담론이 부상하는 시기, 즉 구 질서와 이에 기반한 문화 대신 질서와 이에 기반한 문화가 충돌하는 문화 접변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질적인 가치와 관습 간의 길항은 이 시기 담론을 주도하던 지식인들에 의해 ‘문명개화’의 열망과 계몽의 수사로 집결되었고, ‘계몽’의 대상이 되었던 대다수 서민들은 봉건왕조의 신민에서 국민으로 정체성 전환을 요구받게 되었다.

여성 관련 담론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전통 사회에서 공적 역할이 제한되었던 여성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비로소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그 결과 이 시기 들어 양성평등과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창하는 논의가 공적 영역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남존여비의 관습이나 여성을 공적 영역에서 제외하려는 태도는 ‘야만’ 내지는 ‘구습’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와 국민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개개의 주체를 문명화한 나라의 국민의 일원으로 호명하려는 ‘국민화, 문명화 프로젝트’²⁾에 여성 역시 배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국민화’는

2) 근대전환기 계몽담론의 궁극적 지향이 근대적 국민으로 문명화하려는 거대한 기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 역시 이러한 배치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은 다음 논의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다.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 민

국가 건설 과정에서,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배제하고는 그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민에서 국민으로’라는 정체성 전환의 과정이 반드시 동일한 궤적을 그리며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즉 담론의 주제, 그들이 택한 매체 그리고 포섭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었고, 근대 전환기라는 시기 안에서도 정세에 따라 매 시기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국민화, 문명화 프로젝트’ 담론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나아가 집단 별로 위계화하는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이 시기 대표적 계몽언론의 하나인 『제국신문』의 여성 소수자 관련 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특히 청산되어야 할 구악(舊惡)의 표본으로 자주 등장하는 첩, 무녀, 기생과 삼패 관련 담론을 통해 전통적인 여성 소수자 집단이 타자화되고, 야만의 상징으로 고착화되는 양상을 주로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계몽의 이념이 젠더 별, 계층 별로 어떻게 위계화하는 지를 가늠해 볼 수 있고, 여성 소수자 집단을 배제하고, 타자화하는데 있어 신·구의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 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주로 살펴볼 『제국신문』은 1898년 8월 10에 창간되어 1910년 3월 31일자 마지막 신문이 나올 때까지 13년 간 발행되어, 『황성신문(皇城新聞)』과 더불어 가장 오랜 발행 실적을 가진 한말의 대표적 민족지로 알려져 있다. 순 한글로 제작된 『제국신문』은 서민층과 부녀자들 독자가 많아, 당대에도 속칭 ‘암신문’이라 불렸고,³⁾ 현재까지도 근대 초기의 대표적인 부녀자 신문으로 알려져 있다.⁴⁾ 이는 『제국신문』을 창간

죽·섹슈얼리티·병리학』, 책세상, 2001. 전미경, 『근대계몽기 가족론과 국민 생산 프로젝트』, 소명출판, 2004.

3) 제국신문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 논의를 참조할 것. 최기영, 『『제국신문』 연구』, 언론학논선·3, 서강대언론문화연구소, 1989.

4) 『제국신문』의 여성 계몽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 논의를 참조할 것. 이경하, 『『제국신문』 여성독자투고에 나타난 근대계몽 담론』, 고전여성문학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

의 주역이자, 초대 사장이었던 이종일(李鍾一: 1858-1925)의 창간 취지에도 나타나 있다.⁵⁾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이 신문에는 여성독자의 투고, 부인병 치료약, 여성 관련 질병을 다루는 의원 광고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로 보건대, 『제국신문』은 시사에 관심이 있는 여성 독자를 확보하고 있었고, 이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국신문』지면 분석을 통해 계몽담론을 주도하던 남성 지식인 외에 여성독자의 반응과 욕구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⁶⁾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근대전환기 여성 담론에 나타난 여성 집단의 위계화 양상, 여기에 작동하는 논리를 읽어냄으로써, 문명개화를 통한 근대화라는 목표 안에 상이한 지향과 가치가 혼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신·구문화의 접변과 근대전환기 여성담론의 전개

근대전환기 여성 담론은 국민화, 문명화라는 이 시대의 궁극적 지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서구적 근대 가치의 수용을 통한 문명화는 법률과 제도의 공명정대함, 교육 받은 각성된 국민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었다.⁷⁾ 1894년 단행된 갑오개혁이 비록 외세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있지

회, 2004. 홍인숙, 「근대 계몽기 女性談論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6.

5) 『제국신문』 창간의 주 목적 중 하나가 부녀자 계몽이었다는 것은 신문 창간 전후 사정을 기록한 이종일 일기 『默菴備忘錄』에 나타나 있다. 『목암비망록』 내용 분석은 이경하, 앞의 글. 68~70쪽, 최준의 글(『제국신문』 解題, 『제국신문』 1권, 아세아문화사 영인)을 참조할 것.

6) 계몽담론이 젠더 별로 상이하게 추구되고 있다는 점은 다음 논의에서 지적된 바 있다. 김복순, 「근대초기 모성담론의 형성과 젠더화 전략」,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제국신문』 독자 투고를 분석한 이경하의 논의 역시 남성 젠더의 계몽담론에 동의하면서도,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는 여성독자의 내적 동기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만, 법률과 제도의 개혁을 통한 근대화, 문명화의 열망을 표현한 것이라면, 언론을 통한 대중의 계몽은 ‘각성된 국민’을 만들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이 시기 근대적 주체가 된다는 것은 국민의 일원이 된다는 것과 동등한 의미였던 것이다. 그런데 ‘국민’과 ‘문명’이라는 것은 내포가 모호하기 짝이 없는, 번안된 개념일 뿐 아니라 봉건적 신민의 일원으로서만 살았던 대다수의 대중에게는 낮은 가치 체계였기 때문에 부득불 언론을 통한 대중 계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계몽언론을 통해 유포된 여성 관련 담론은 자연스럽게 ‘국민 만들기’라는 목표로 합류하게 되었다. 그 시작은 여성을 국가라는 공적 영역의 일원으로 호출하는 것이었다. 이는 ‘가족 내 일원’으로만 고착화되었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오랫동안 공적 영역으로부터 소외되어왔던 여성이 그 안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문이 필요하다. 여성 교육의 필요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 다음의 두 인용문은 계몽의 열기가 고조되었던 1894-1899 동안 여성 관련 담론의 인식적 기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 대저 사람은 다 일반이어늘 서양녀인들은 엇지하야 그러하고 청국이 나 우리 나라 녀인들은 일평성 신세를 남즈에게만 의탁하고 감아니 규 중에서 세월을 보내야 음욕서 죄안갓치 늙기까지 세상이 엇던거신지 알지 못하고 지나는 사람도 있고 또 엇던 녀인들은 밤낮으로 경영과 공부하는거시 남즈의 지물을 썩어스 먹어가며 아참에는 리가에 계집이오, 저녁에는 장가에 계집노릇 헝기로 능스를 삼아가며 능라금슈로 몸을싸고 유두분면으로 단장헝기만 힘을 쓰고 침션방직이나 도석음식도 짓기를 슬혀하느니 그 신세를 생각건대 우리나라 녀인들도 아모도록 남과

7) 이러한 문명 관념은 <나라 등슈>라는 『독립신문』 1899년 2월 23일자 논설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논설에서는 문명 관념의 심도에 따라 각국을 문명국, 개화국, 반개화국, 야만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갓치 학문을 비와 녀중군즈들이 되어 남의 교소노릇도 하고 의원노릇도 해야 착흔일 헝기를 힘을써서 녀인의 명예를 세계에 전파헝기를 축슈헝노라 8)

(나) 세상에 불샹흔 인싱은 쥌선 녀편네니 우리가 오늘날 이 불샹흔 녀편네들을 위햐야 쥌선 인민의게 말햐노라. 녀편네가 사나회보다 쥌곰도 나진 인싱이 아닌디 사나회들이 천디헝는 거슨 다름이 아니라 사나회들이 문명 기화가 못되야 리치와 안정은 싱각지 안코 다만 쥌기의 팔심만 밋고 압제햐라 거시니 엇지 야만에서 다름이 잇스리요 (쥌략) 쥌선 남녀의 헝실을 비교햐여 볼진디 녀편네가 사나회보다 빅비가 나흔 거시 첫지는 사나회 중에 음헝헝는 자이 더 만코 쳍둔 사름이 만히 잇시되 녀편네 중에는 음헝헝는 이도 적고 간부 둔 녀편네도 적은쥌 엇지 사나회보다 높고 경결치 안햐리요 (쥌략) 쥌선 부인네들고 츄츄 학문이 높하지고 지식이 널너지면 부인의 권리가 사나회 권리와 궂헝 줄을 알고 무리헝 사나회들을 제햐햐는 방법을 알니라 그러키에 우리는 부인네들씨 권햐노니 아모썸록 학문을 높히 비햐 사나회들보다 헝실도 더높고 지식도 더 널펴 부인의 권리를 찾고 어리쥌고 무리헝 사나회들을 교육햐기틀 브라노라 9)

두 글은 공통적으로 남녀 간의 동등권, 교육의 필요성, 여성의 사회 참여를 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을 하대하는 관습과 일부일처제의 근간을 흔드는 축첩과 음행(淫行)은 문명개화에 역행하는 야만으로 치부되고 있다. (가)에서는 동·서 간 양성 권리의 차이가 문명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교육이 정당한 권리 획득 뿐 아니라 인간 개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개개인(특히 여성)의 ‘처신’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이후 『제국

8) 『제국신문』 1899년 12월 19일 논설 <何異東西>

9) 『독립신문』 1896년 4월 21일 논설 <哀呼我女>

신문』에서 꾸준히 발견되는 논조이다.¹⁰⁾ 여기에서 전통적 수신(修身)의 덕목이 개개의 신체에까지 작동하는 근대적 신체 규율로 바뀌어 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나)에서는 행실 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못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우월하다고 하여, 보다 급진적인 남녀동등의 이념을 설파하고 있다. 나아가 여성의 권리를 문명화의 징표로 제시하고 있다.

두 글에서 말하는 교육이란 ‘교사 노릇’과 ‘의원 노릇’을 할 수 있는 것, 즉 근대적 지식 체계에 기반하여 사회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학문을 배운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여성의 처신, 교육, 가정 내 지위, 사회적 역할은 하나의 논리로 관통한다. 요컨대 문명한 나라이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체, 가족 내 질서, 젠더 별 사회적 역할 등 공사의 영역이 규제와 개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회 각 분야의 변화에는 그동안 존중되었던 관습의 변화 나아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의 형성¹¹⁾이라는 운동적 차원의 변화가 따르게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구 지식과 이에 기반한 제반 가치는 자연스럽게 변화와 성찰의 대상이 된다. 그리하여 봉건적관계를 매개하면서 전통적 가치의 근간을 이루었던 유교 이념과 문명의 표준으로

10) 다음 장에서 다룰 ‘첩’ 문제와 관련한 여성 독자 투고 <엇던 유지각한 시고을 부인의 편지>나 국문을 통한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1903년 6월 20일자 논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녀학교가 업고 계집조식 가라치는 학교가업서 그러호되 녀인의 행동거지와 처신법절을 보게드면 다각각 달음이잇나니 가랑 그집안 규모가 단정호고 그부형이 학문이잇고 그어머니가 겸손은집 조손으로 유순명정 호게드면 그 조식들의 형실도 다 단정호고 만일 그부형이 부랑괴뢰호고 그어머니가 형충 밋음올호거나 피약무도 호게드면 그조식들의 보고 들은거시 모다 그런일이오 당초에 단정호고 올흔일은 보지 못호앗스니 어디로조차 문견이 잇스며 덕행이 싱기리오 료류 장화로 아침에는 장가의 계집노릇호고 전역에는 리가의처노릇호는 계집의 싱장호 근 본을보고 두남편을 섬기지만코 규중에서 늑는 부인의 본디를 싱각호야불진디 아마도 불학무식호 사름에 조식은 형실이 단정치못호고 학문과 덕행잇는스름의 조식은 부잡 혼자가 적은지라” 『제국신문』 1903년 6월 20일자 논설 <녀조 교육의 관계>

11) 전미경, 앞의 책, 137쪽.

새롭게 부상한 서구적 가치 사이의 거리는 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문명’과 이상적 공동체로서의 ‘국가’의 실질적 함의는 양자의 거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여성 관련 담론은 이렇듯 전통적 유교 담론과 새롭게 전범으로 부상한 서구적 문명 관념이라는 경계 위에서 형성되고, 전개되었다. 말하자면 젠더 간 지위와 역할을 엄격히 구분하고, 이를 공사의 영역에 두루 적용했던 유교적 젠더관은 ‘남녀동등’이라는 새로운 윤리적 기준과 대면해야 했던 것이다. 다음 인용문은 상이한 가치가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녀즈는 나라 빅성된 자의 어머니될 사름이라 녀즈의 교육이 발달된 후에 그 즈녀로 하여곰 착한 사름을 일울지라 그런고로 녀즈를 ㄹㄹ침이 곳 가댕교육을 발달하야 국민의 지식을 인도하는 모범이 되느니라 12)

유학자 출신의 계몽 지식인이었던 장지연의 『녀자독본』의 첫 구절은 근대 전환기 여성을 둘러싼 담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앞서 살았던 여성들의 가행(嘉行)과 선행을 골라 모은 독본이라는 점에서, 조선 시대 여성 교육을 위해 제작했던 규훈서(閨訓書)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국민의 어머니’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책무를 강조한 이 책은 가족 내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했던 전통적 유교담론이 새로운 시대와 대면하면서 어떻게 변용되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는 김유신의 어머니를 필두로 동서고금의 모범적인 여성들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녀교육의

12) 장지연, 『녀자독본』 상 테일장, 광학서포 발행, 1908(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 『장지연 전서』 4권).

모범이 된 어머니 외에 남편을 훌륭하게 내조한 양처, 가정과 나라를 위
기에서 구한 의로운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공통적으로 희생과 헌신의 덕
목을 내재화하고 있다.

집필 의도와 체제에서 드러나듯 『녀자독본』은 ‘자녀를 훈육하는 어머
니상’을 여성이 추구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 두고, 교육의 주체를 어디까
지나 ‘가정’으로 상정했다는 점에서 전통적 유교 지식인의 담론을 계승
하고 있지만, 여성 교육의 궁극적 귀결점이 국민을 낳고 기르는 ‘국민
양성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¹³⁾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새로운 시대에
절맞게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국민을 기르고 가르치는 어머니’의 지위
를 얻으면서, 여성은 비로소 국민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다.

국가에 이바지할 훌륭한 인재를 기르는 어머니의 역할은 ‘여자는 남자
를 낳고 기르는 근본’이라는 말로 압축된다.

즈고 이리로 왕후장상과 영웅호걸이 다 녀즈의 비속으로 나오며 녀즈의
손아래서 길내내었느니 만일 남즈를 교육홀 경영이 잇스면 반드시 먼저
녀즈를 교육혀야 츠데가 분명하고 남즈의 교육도 성취가 될지라 비컨디
나무를 심으라면 먼저 싹희를 비양혀야 지엽이 무성하고 싹희가 단단치
못혀면 지엽이 말올지라 이와갓치 녀즈는 남즈를 낳코 기르는 근본이니
엇지 근본을 낳코 몽명 기초를 도모허리요 동양이 미약하고 진흥허지 못
흠은 실노 녀즈의 교육이 업슴이라 ¹⁴⁾

이처럼 여성이 ‘국민 양성자’로 거듭 나면서, 가정은 개인과 국가를 잇
는 사회의 하부 단위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가족은 더 이상 사적 영역에
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국가를 잇는 매개체이자 국민화, 문명
화를 실천하는 기구였던 것이다.¹⁵⁾ 1900년 이후 계몽담론에서 ‘가족’이

13) 홍인숙, 앞의 글, 64~65쪽.

14) 『제국신문』 1901년 4월 5일자 <론설>

종종 개조의 대상으로 거론되었던 것은 가족을 공익을 실천하는 기구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가 가시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 관련 담론의 추이에서 보듯, 여성 교육의 의미는 여성의 자신의 권리 신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가정의 개조를 통한 국가 건설로 귀결되었다. 즉 여성 지식 획득의 결과는 전통적 성 역할 구도에 변화를 가져오거나 위협적이지 않으면서, 가족의 질서를 공고히 하고 국가 부강의 기초가 되는 것이어야 했다.¹⁶⁾ 바로 이 지점에서 유교적 가부장제와 가부장적 국가주의는 큰 충돌 없이 병존하게 된다. 1908년 여자교육회(女子教育會) 회지로 간행된 여성지 『너즈지남』에 실린 청해백의 글은 남녀동등론이 어디로 귀결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일어하고야(여성이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야 필자 주) 엇지 그사람이 문명하며 그집이 완전하며 그나라이 부강하리오 연즉 이천만 동포에 남조 일부분 잇슴은 알거니와 너조 일부분은 과연 말이지 잇서도 업는 모양이 오니 너조는 국가분자가 안이되여 그러한가 남조 부분 일천만 동포는 더 말할것 업거니와 자미 부분 일천만 동포는 김히 생각하오서 일천만이 하던 책임의무를 이천만이 분담하왓스면 사람이 문명하고 나라이 부강함은 가히 안져서 일울터이오니 김히 삼가고 길게 생각하옵쇼 남조의 교육만 힘쓰지 말고 너조의 교육을 더욱 힘쓸지니 남녀가 동일히 교육을 받아 동심동력으로 실업을 발달하며 조너를 자양하면 이것이 과녕 하늘과 쌍히 함께 힘써서 만물을 성장 성실히함과 갖고 남녀가 일반적으로 자유권리를 엇고 의무책임을 알면 이것이 과연 텃디간에 날과 달이 쥬야로 분담하야 명남함과 갖고 ¹⁷⁾

15) 전미경, 앞의 책, 28쪽.

16) 홍인숙, 앞의 글. 108쪽. 『제국신문』 1903년자 6월 19일 논설 <여자교육의 관계>에서도 여성 교육이 여성의 전통적인 덕목을 고수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음을 역설하고 있다.

17) 청희백용, <남녀의동등론>, 『너즈지남』 제1권 1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

부강한 국가의 건설이라는 현실적 목표 앞에서 남녀동등론과 음양론은 조화롭게 결합한다. ‘차이를 통한 생성’이라는 음양론의 기제¹⁸⁾는 ‘국민의 탄생과 양성’이라는 절대 절명의 목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가족을 개조의 대상으로 삼고, 여성을 가족 내 훈육자의 위치로 고정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몽언론을 주도한 남성 지식인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¹⁹⁾ 이는 근대성이 남성성과 동일시된다거나, 근대의 담론이 ‘남성 중심적’이라는 사실²⁰⁾과 중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성의 국민화’라는 남성 지식인 중심의 기획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활동할 공적 영역을 확보하고,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유력한 방식이었다는 점까지 부인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특히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동향이 분주해지는 1900년 이후에는 ‘가족이 확장된 형태로서의 국가’라는 관념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여성의 주장 역시 이에 포섭되는 경향이 보이기 시작한다. 여성을 민족적 주체로 재탄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게 한 1907년 국채보상운동²¹⁾에 다양한 계층의 여성이 참여했던 것은 남성 지식인의 논리를 여성이 자발적으로 수용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여성의 국민화 기획’은 전통

소 편, 『韓國女性關係資料集: 韓末女性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1)

18) 이숙인, 『유가의 몸담론과 여성』, 『여성의 몸에 대한 철학적 성찰』, 철학과 현실사, 2000. 134~135쪽. 음양론은 음과 양의 ‘차이’에서 성찰하여, 양존음비(陽尊陰卑)라는 ‘차별’의 논리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음과 양의 상보적 대립의 내포는 시대와 논자와 해석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근대 전환기 여성담론과 음양론의 결합은 ‘생성’이라는 점을 공유한 결과로 보인다.

19) 남성 젠더의 여성담론이 국가담론 및 가족담론에 여성을 종속시키는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여성 개인의 권리나 자유보다는 남성의 여성지배나 국가 발전을 우선시 한 반면, 여성 젠더의 여성담론은 모성담론 및 가족담론의 결여형태로 여성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우선시 한다고 하여, 젠더 간 담론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제출되어 있다. 김복순, 앞의 글.

20) 리타 펠스키 지음, 김영찬·심진경 옮김,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43~44쪽.

21) 고미숙, 앞의 책, 95쪽.

논리의 전복, 전통 논리와의 협상의 과정을 부단히 거치면서 그 의미를 확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계몽담론의 장(場)과 여성 소수자

주변부에 위치했던 여성은 이렇듯 근대적 국가를 건설한 의무를 분담함으로써 국민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여성이 국민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근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내재화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여기에는 앞장에서 살펴 본 국가적, 민족적 책무의 수용이라는 거대담론 차원의 문제 외에, 신체에까지 작동하는 미시권력의 훈육과정을 순조롭게 수용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기도 한다.²²⁾ 근대화의 전범으로 삼았던 서구에서 근대와 함께 신체의 재발견과 섹슈얼리티의 통제를 수반했고, 이것이 국민으로의 개조에 필수적이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민을 양성할 책임을 진 어머니가 될 여성에게 섹슈얼리티의 통제와 신체의 규율이라는 문제가 더 중차대했다는 것은 불문가지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계몽언론에는 과부 재가의 문제, 조혼의 문제, 축첩의 문제 등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혼인 제도를 둘러싼 논의들이 봇물을 이룰 정도로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섹슈얼리티의 통제와 이를 수행할 제도와 윤리적 기준은 전통 시대부터 있어왔다. 유교담론에서는 여성의 성을 ‘바른’이라는 의미의 정(貞)과 ‘그릇된’ 혹은 ‘올바르지 않은’이라는 의미의 음(淫)으로 나뉘, 정음(貞淫)의 이분법으로 관리해왔다.²³⁾ 이 구분에 따를 것 같으면, 여

22) 이형대, 「근대계몽기 시가와 여성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278쪽.

23) 이숙인, 「열녀담론의 철학적 배경: 여성 섹슈얼리티의 문제로 보는 열녀」,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편,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2, 39~46쪽.

성의 성은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성과 일탈적 향락의 대상이 되어버린 공천(公賤)의 표상으로서의 성으로 구분된다. 그리하여 음(陰)과 양(陽), 정(貞)과 음(淫)이라는 섹슈얼리티 위계화의 기제가 무단히 작동하는 것이다. 엄격한 내외법(內外法)의 이면에서 이루어진 사대부와 기생의 로맨스와 ‘공공연한 불법’이었던 축첩제는 이중적인 성 관리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²⁴⁾

남녀의 위계화에 따른 섹슈얼리티의 통제와 그 부산물인 관습과 제도는 문명의 표준에 걸맞는 건전한 가정의 형성을 모범으로 상정했던 계몽 지식인에게는 ‘청산해야 할 구습’으로 비취졌던 것이다. 이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전한 가정이란 ‘부부애’에 기초한 서구적 의미의 가정이었다.²⁵⁾ 따라서 이전 시대부터 정절을 절대적 가치로 강요받았던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정절의 의무가 부과되었고, 당사자 간 합리적인 의사 선택이 배제된 조혼이나 매매혼은 가차 없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더구나 가정이 국민을 양성하는 국가의 하부 조직이고, 혼인은 그 가정을 이루는 행위였기 때문에 혼인과 관련한 제도와 관습의 개량은 한결 긴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들의 비판은 차별에 기초한 관습과 제도 뿐 아니라, 작첩을 하거나, 첩이 되는 자, 매음을 하는 자, 건전한 풍속을 괴란시키는 자 등 구습을 행하는 자에게도 겨누어졌다. 그리하여 전통적으로 합법적인 가족제도의 외곽에 존재하며, ‘음란한 존재’로 규정되었던 첩, 기생과 삼패, 매음부, 무녀는 근대적 가족 질서에서도 잉여의 존재로 취급 받으며, 또 다시 비판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그 비판이 궁극적으로 어느 지점을 겨냥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판에 내재한 논리는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것

24) 박애경, 『기생-가부장제의 경계에 선 여성들』, 『여/성이론』 4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1, 222쪽.

25) 전미경, 앞의 책, 85쪽.

은, 이 시기 남녀동등론의 인식적 기반을 다시금 성찰하는 데에도 유효하리라 생각한다.

3.1. 문명화된 가족제도의 국외자 - 첩

첩은 가부장적 가족 질서가 낳은 전통적인 여성 소수자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정실과 첩의 지위를 명시한 조선의 지배세력은 태종 연간부터 성종 연간에 걸쳐 처첩 간, 그들의 소생 간 차별을 법제화함으로써 성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가족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통제책으로는 하나의 정실만을 인정하는 ‘예가무이적(禮家無二嫡)’ 규범, 첩의 소생인 서얼의 관직 임용을 제한하는 ‘서얼금고법(庶孽禁錮法)’, 개가한 여성 자손의 관직을 제한하는 ‘재가녀자손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 사대부 여성의 외출을 금지하는 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조선 후기 들어 종법적 가족 질서가 공고화하면서, 그 통제는 한결 강화되었다.²⁶⁾ 이러한 통제책의 목적은 가부장과 정실의 지위와 역할을 엄격히 구분한 일부일처제 가족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책과 상관없이 조선 시대 전 시기에 걸쳐 작첩은 지배 세력 간에 공공연히 이루어졌고, 축첩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한말에 이르면, 지위와 재력이 있는 지배층 간에는 첩을 두는 것이 일반화된 관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⁷⁾ 요컨대

26) 정지영, 『조선 후기의 첩과 가족 질서-가부장제와 여성의 위계』, 『사회와 역사』 65집, 한국사회사학회, 2004, 6쪽.

27) 한말 호적 자료를 통해 서울 지역 첩가호의 분포를 살핀 연구에 의하면, 첩가호가 신분별로는 양반층에 80% 이상 집중되어 있고, 경제력으로 볼 때에는 20칸 이상의 집을 소유한 재력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조은·조성운, 『한말 서울 지역 첩의 존재 양식-한성부 호적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5집, 한국사회사학회, 2004.

남성 지배층에게 첩이란 가족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인 동시에,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과시할 수 있는 욕망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처첩 간 지위와 역할을 엄격히 구분한 것은 일부일처제를 명문화한 법제와 윤리 규범, 작첩이 관습적으로 허용된 실상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첩을 얻으면서도 첩을 배제하는 전략으로 정실의 입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첩의 향유를 정당화했던 것이다.²⁸⁾ 따라서 부덕을 지닌 정숙한 존재인 정실과 색기 넘치는 음란한 존재인 첩은 지배담론 내에서 자연스럽게 위계화된다. 정실에게 첩이란 가족의 안녕을 해치는 반갑지 않은 존재이지만, 자신의 입지를 지키고 도덕적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 투기를 삼가야 했으며, 첩은 가족 제도로부터 소외된 존재이면서도 가족의 의무를 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향락을 제공하고, 가장과 정실에게는 순종의 의무를 지켜야만 했다.

이렇듯 가족 질서를 위협하는 부도덕하고, 음란한 침입자라는 시선을 받아왔던 첩은 근대전환기에 이르면 전근대적 가족제도의 미개함을 표상하는 존재라는 낙인이 추가되기에 이른다. 요컨대 첩은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한 건전한 가정을 구축하는 데, 최대의 장애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가) 사름이 되어 남의게 첩 노릇하는 녀인은 하늘에 꺾치 풍부흔 권리를 직회지 못하는 인성이라 불가불 허등 천흔 사름으로 디첩혀야 세상에 명기를 붓그러이 녀일지락 대저 사나희가 첩두는거슨 제일 괴악흔 풍속이어늘 (중략) 지금은 반상 등분을 업시 하고 본즉 정실과 천첩의 등분이 업스면 명분이 자연 혼합히미 괴악흔 풍습은 곳칠 날이 업는지라 근자에 우리나라에 부인회도 생기고 녀학교도 설시 홀터인즉 그등 규칙 마련이 엇더흔지는 모로 거니와 만일 녀의 첩이나 혹 천기 명식을

28) 정지영, 앞의 글, 34쪽.

가리지 안코 흔히 참에 혼디겨이면 스부가 부인 네가 참 천한 사람들과
 도등을 아니 흘려 흘터이오 중략 처신이 탕잡한 계집들을 비홀러이던
 누가 쏘이나 누이나 안히를 니세어 회석에 참에하며 학교에 다니게 하
 기를 도하 하리오 그림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녀인회를 설시하던지 녀
 학교를 설립하던지 맛당히 규칙을 달니 마련해야 놉의 첩노릇 하는 계
 집들은 일절 동등권을 주지 말어 등분을 밝히 하여야 29)

(나) 대한풍속에 괴이흔거시 만호되 그중에 심흔거슨 음풍이라 정부 관인
 으로부터 여항의 빅성씨지라도 쳐첩두기를 도화해야 심흔자는 정실 하
 나에 별방이 삼스쳐이오 그다음은 일처이첩이 대장부의 당연흔일이라
 하며 아적밥과 전녀죽을 먹을만흔 사람이면 의레이 첩을두어 무죄흔
 안히를 공연 박축하는 자도 잇고 첩으로 인연해야 꽤가망신 하는 자도
 잇시며 그첩이 호흔 작과 모습에 합당치못하면 곳보내고 다른첩을 두
 기도하며 그첩이 늙고보면 또다시 이팔청춘의 쇼첩을 구하는 자도 잇
 느니 이거슨 남자들이 음형을 임의로 하며 녀즈로 하여곰 절지를 날케
 흠이라 태초시에 하느님이 사람을내실적에 일남 일녀로 작명하신것슨
 음양의 공효가 서로 갓홈이오 남녀의 권리가 동등됨이라 룽측과 기계
 는 사람이 마음터로 부리다가 합의치 못하면 비록 열 번이라도 팔코사
 며 곳치려니와 또 갓흔 사람으로 혈육을 교합하던 녀즈를 엇지 물건갓
 치 출척하리오 이거슨 인의례지가 잇는 사람의 형스가 아닌즉 엇지 만
 풍이라 흠이 적당치아니리오 30)

두 글은 ‘괴악한 풍속’ 혹은 ‘만풍’이라 칭하면서 축첩제의 야만성을
 질타하고 있다. 동시에 축첩제의 폐단을 개인의 부도덕성에서 찾고 있다
 는 점도 공통적이다. (가)에서는 남의 첩 되는 자는 천한 사람으로 대접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를 들어, 처첩 간의 차별을 당연시하고 있다.

29) 『제국신문』 1898년 11월 7일자 논설

30) 『제국신문』 1901년 1월 31일자 논설

이들은 첩을 기본적으로 천기, 명색과 동류의 ‘행동 처신이 탕잡한’ 음란한 존재로 못 박고 있다. 이러한 시선은 “첩을 얻는 사람이나 첩이 되는 계집들은 세상에서 가장 천한 사람으로 대접하여야 마땅하다”는 독립신문의 논조³¹⁾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위 논설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여성회나 여학교 교육에서도 첩을 배제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성회나 여학교가 여성을 공적 영역으로 불러들여 이들을 의식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화하기 위한 관문임을 상기해 보면, 회합과 교육으로부터의 배제는 곧 첩의 국민될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하자는 의미인 것이다. 이들에게 첩이란 반상의 구별이 철폐된 문명 세상과는 분리된, 여성 내부의 ‘불가촉천민’이었던 것이다.

서양인 객과 우리 논객 간에 오간 가상의 토론을 통해 축첩제의 문제에 접근한 (나)글은 첩을 두는 행위를 인의예지가 있는 사람이 차마 할 수 없는 음행(淫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첩 행위는 하늘이 정한 일부일처제의 떳떳한 원리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글은 서양인 객이라는 가상 인물의 입을 통해 축첩제를 외부자의 시선에서 비판하고 있지만, 실은 계몽 지식인 대다수가 공유하는 시각을 화법을 달리하여 읊긴 것에 불과하다. 특이한 것은 축첩제의 야만성을 질타하는 인용문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측 논객의 변이다. 논객은 백운과 혼인하기로 한 약조를 지킨 제후의 고사를 통해, 고래로 우리나라에도 신의와 정절이 있어왔다는 것을 설파하고 있다. 여기에서 축첩제의 야만성을 시정할 모범적인 사례로 든 것이 정혼한 자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켜 낸 백운의 열행(烈行)인 것이다. 신라 진흥왕 시절의 고사를 통해 정절의 문제를 새삼스럽게 제기한 논조는 광범위하게 퍼진 축첩제의 폐단을 개개인의 도덕적 각성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31) 『독립신문』 1896년 6월 16일자 논설

으로 볼 수 있다.

두 글에서 확연히 드러나듯, 『제국신문』을 비롯한 계몽언론의 주조는 축첩제를 사회구조적인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도덕성 부재에 따르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²⁾ 이 대목에서 열행이라는 전통적 윤리는 축첩제의 야만성을 극복할 대안으로까지 미화되고 있다. 과부의 개가를 금지하는 제도를 전근대적 야만으로 규정하면서도, 열행을 칭송하는 의식의 착종은 전 근대적 가족제도의 후진성을 질타하는 와중에도 효부와 열녀에 대한 미담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했던 사실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³³⁾ 첩 문제를 바라보는 『제국신문』의 접근 방식은 기본적으로 신·구의 가치가 혼재된 시기적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서구적 근대를 문명의 표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이나 전망, 방법론은 부재했던 현실적 상황이, 의식적 지향과 담론적 실상 간의 괴리로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가부장적 통제에 대한 남성 지식인의 무의식적 집착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³⁴⁾ 왜냐하면 첩 문제는 남녀 간, 그리고 여성 내부에도 처첩 간 역동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성별과 계층에 따른 균열이 더 뚜렷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첩 출신으로 짐작되는 여성의 기고문은 이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32) 전미경, 앞의 책, 113쪽.

33) 남녀동등론에 입각하여, 여성 교육과 사회참여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논지가 강하게 피력되는 1898~1900 연간에도 효부와 열녀에 관한 기사가 <잡보>란에 꾸준히 보이고 있다. (1899년 5월 12일자 잡보, 1899년 11월 3일자 잡보, 1900년 6월 23일자 잡보) 근대전환기 신문 잡보란에 열행 관련 기사가 67회나 게재되어, 성 풍속 관련 기사 중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다는 보고도 제출되어 있다. 홍인숙, 앞의 글, 91쪽.

34) 홍인숙, 앞의 글, 94쪽.

부인도 층층이요 스부도 층층이요 남의 첩도 층층이지 스부의 딸이라고
 형세가 탕잡하면 그러도 빈잇가 상노르 딸이라도 종작업는 남자들이 후취
 삼취 사취까지 흠부로 히온것도 부인축에 가오릿가 첩이라도 상쳐후후 드
 러와서 고락을 갖치 격고 봉제스점빈객에 자식 낫코 일부종스하는 첩이
 부인만 못홀릿가 탕잡부랑하는 첩과 갖치 옥석구분하여서야 엇지아니 분
 히릿가 녀학교를 설히다니 설시전에 이구정을 먼저히기 천만축슈 하나이
 다. (중략) 부디부디 딸 가지고 남의 시앗 유지말고 첩노릇을 하지마오 세
 상에 못홀 노릇 그맛게 쏘잇는가 김히김히 심각하고 아모도록 흑문 비와
 외국부인 동등되게 일심으로 합력호오 35)

처첩 간의 차별, 공적 영역에서의 첩의 배제를 주장한 11월 7일자 논설에 대한 한 여성 독자의 반응에서 처첩 간 차별의 부당함, 남성과의 관계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진 신분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행실에 의해 그 지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읽을 수 있다. 이 여성은 첩이라도 상쳐한 자의 첩으로 들어가 일부종사하고, 봉제사·점빈객의 의무를 다한 이는 부인 못지않으므로, 탕잡부랑한 첩과 같이 취급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요컨대 첩 간에도 탕잡한 무리와 실질적인 조강지처의 역할을 한 이 간에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첩 간에도 옥석이 구분이 있고,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전통적 부덕이라는 점에서 시골 부인의 기고문은 일견 집단 간의 위계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개개인의 처신을 강조하는 주류 담론의 논리를 답습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기고문의 진정한 의미는 첩에 대한 동류의식을 표명하면서 첩들도 교육을 통해 동등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부덕을 지닌 정숙한 존재인 정실/ 음란·탕잡한 첩이라는 주류 담론에 균열을 일으켰다는 데에서 찾아야 할 듯하다. 이는 첩이 계몽담론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는 존재가 아니라 계몽의 주

35) 『제국신문』 1899년 11월 10일자 <엇던 유지각한 시고를 부인의 편지>

체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애초에 논설을 게재한 『제국신문』 측의 반응이다. 여성의 기고문 뒤에 덧붙인 변에서, 첩이 천하다고 한 이유는 탕잡한 행위를 말한 것이고, 위의 여성처럼 상처한 자리에 들어가 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남의 시앗노릇을 하는 자와 광범위한 의미를 첩을 구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명에 유위하는 모습에 감스해야 발간한다”고 하여, 기고한 여성의 능동성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극적이거나 이 여성의 기고에 대해 찬동의 의견을 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문명할 세상을 일구는 데 일조할 몇몇한 주체로 거듭나고픈 첩 출신 여성의 의지를 수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제국신문』 측의 변론은 축첩의 문제를 여전히 ‘개인의 음란함’ 탓으로 돌리고, 이들의 배제를 주장했던 기존의 논조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2. 구습의 표적 - 무녀

미신타파는 근대전환기 풍속개량 담론의 핵심이었다. 귀신이 복과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전통적 하층민의 믿음은 곧 야만으로 치부되었다.³⁶⁾ 비판은 무녀를 통해 안녕을 비는 자와 무녀에게 고루 향하고 있지만, 주표적은 말할 것도 없이 무속인, 그중에서도 무녀이다. 무녀에 대한 비판은 그들이 백성을 흑세무민(惑世誣民)케 하는 존재이면서, 궁극적으로는 미신의 담지자라는 데에 집중된다.

36) “슬습하다 동양사람들은 학식이 고루하고 심지가 나약한 고로 혼이 싱각하기를 귀신이 능히사람에게 지양과 복을 준다 하여 (중략) 설혹 귀신이 잇실지라도 문명한 나라 사람들은 당초에 디접을 아니하고 열너지못한 빅성은 정성으로 섬기느고로 서양에잇는 귀신들이 모다 청국이나 인도국이나 아프리카야 야만국으로 쫓겨간거시로다하매 모힌 사람이 다 손벽을치며 즈미있게 드렀다 하니” 『제국신문』 1901년 2월 5일자 논설

(가) 삼청동 흥에문안에 사는 계집 혼년이 관운장을 집혔다 칭하고 금데 망건 진스립에 물더푼긋흔 탕건을 쓰고 안져서 세상에 지각 업는 사름 들을 속여 지물을 췌야사 먹고 살더니 일전에 경무청으로 잡아 갔다하니 그런 요사흔 계집들이 엇지 장구홀 리치가 잇스리오³⁷⁾

(나) 무당이라호는거슨 네전부터 요사흔말과 화복의일노 듯는사름의 믿음 을 공동하며 사치의복과 공교흔춤으로 보는 사름의 이목을 현황케호는 고로 한문글즈로 불지라도 말슴언즈변에 무당무즈를 니르디 속일무즈 라 호는니 무당의 말이 흥상 사름을 속인다흠이라 무식흔 빅성들의 속 는거슨 족히 말슴홀 것업거니와 경스대부의집과 학식잇는 선비집에서 도 종종 간스흔 무녀의 속임을 당호야 저지와 포목을 공연히 허비호며 당집으로 보내여 복을빌고 십삼도 관찰부와 삼빅오십 여주에 읍니마다 관무당이라호는거시 의례히 잇서 관찰스와 슈령들이 새로 도입흔 후에 반다시 굿술호야 귀신의게 복을빌고 도아춤을 었은후에 만스가 여의호 며 빅성이 안락하고 일후에더놓고 호흔 벼술를훈다 호는니 춤어리석고 개탄홀 일이라³⁸⁾

두 글에 따르면 무녀의 굿과 점술은 단순히 백성을 미혹케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요망하고 간사한 말로 속여 재물을 탈취하는 일종의 사기 행위로 그려지고 있다. (가)의 글을 보면, 경무청이 단속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아 무녀의 행위가 풍속의 문제를 넘어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전의 기사에서도 췌내 여인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재물을 쌓고, 남편의 인사에까지 개입한 화개동 작두방이라는 무녀의 체포 기사를 전하며, 경무청이 당연한 직책을 하였다고 치하하고 있다.³⁹⁾

(나) 역시 무당을 ‘속이는 자’로 못 박고, 무당을 통해 안녕을 비는 풍

37) 『제국신문』 1898년 9월 29일자 잡보

38) 『제국신문』 1901년 3월 9일자 논설

39) 『제국신문』 1898년 9월 27일자 잡보

속을 개탄하고 있다. 무당이라 지칭하였지만, 실제 비판의 칼날은 무녀로 향하고 있다. 무녀에 대한 적대감에 가까운 비판은 이어 소개하는 전국시대 위나라 업하 태수 서문표의 고사에서 절정에 달한다. 서문표는 하수를 주재하는 하백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희의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제물로 선택된 처녀 대신 노소 무당들을 차례로 다 하수에 던져 빠져 죽게 하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폐단을 시정했다고 한다. 악습의 주범인 무당을 응징한 데 대해 논설에서는 전폭적인 동감의 의견을 표하고 있다.⁴⁰⁾

무녀에 대한 비판은 하층민, 특히 여성 하층민 사이에 널리 퍼진 풍습을 전면적인 개조의 대상으로 삼았던 계몽 지식인의 시각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에게 무녀는 무지함과 미개함을 환기케 하는 인물이었을 뿐 아니라,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음란한 존재로 치부되었다. 특히 무녀는 여성의 일상에 깊숙이 개입한 존재일 뿐 아니라, 전통적 질서에서나, 문명화의 표준에서 벗어난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비판의 주 표적이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이들에게 무녀는 ‘구(舊)’로 압축되는 모든 열등감을 담지한 존재이자, 문명화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제거해야 할 ‘희생양’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무녀와 하층 여성의 풍속에 대한 비판은 남성 지식인 뿐 아니라, 공적 담론을 주도하는 여성들 사이에도 공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양과 복은 사람이 스스로 취함이고 귀신이 능히 주지못함은 하늘 리치에 덧덧함이니 (중략) 영언비명이 자구다복이라 호얏스니 그 뜻은 올흔 일로 턴명을 직히면 스살 복이 만히 온다는 말이오 또 읍스무복이라 호얏스니 그 뜻은 읍난흔 제사 지니는 이는 복을 밧지 못흔다는 말이라 슬푸다

40) “우리 나라에도 서문태수 갓흔이가 잇시면 무당들이 빅성을 고히호지 못홀진더” 『제국신문』 1901년 3월 9일자 논설

우리나라 녀즈사회는 요사흔 풍속으로 귀신을 밋으며 기도를 조아햏야 그 괴상흔 종류가 이로 싹을수 어브나 더강 말햏건디 중략 우리 녀즈도 문명흔 스업에 진보햏는터인디 엇지 지앙취햏기를 조아햏리오 허무햏고 능력업는 귀신만 밋지말고 총명흔 정신과 허비햏는 지물로 자선을 목적햏야 혼 사릅을 구햏면 빅사릅의 복을 밋을것시오 두사릅을 구햏면 천사릅의 복을 밋을 것이니 이는 하느님이 감동햏야 복을 주심시오 또 사릅이 스사로 복을 밋음이로다 슬푸다 어지신 동포즈미여 버릴지여다 지앙을 스사로 버릴지여다 취햏지여다 복을 스사로 취햏지여다 우리 인즈햏신 동포즈미여 41)

유력자들의 부인들로 조직된 자선부인회의 회지로 발간된 『자선부인회잡지』에 실린 이 글은 무녀를 ‘음란한 제사를 지내는 이’로 규정하고, 문명한 사업에 역행하는 자로 보고 있다. 무녀에게 복을 빌기보다는 자선사업에 힘써 스스로 복을 취하라는 당부의 말은 여성 스스로가 미개한 풍속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동류의 식을 보여주지만, 하층 여성 사이에 널리 퍼진 풍속을 야만시하는 시선을 명백히 드러낸다는 점에서 여성 간의 위계화 의도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무녀라는 대상은 담론 주체의 성별, 계층 별, 문화적 배경⁴²⁾ 별로 시선의 차이가 노출되는 문제적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제국신문』 무녀 관련 기사와 논설은 전통시대부터 주류 담론에서 이탈된 존재이면서도, 여성과 하층민의 일상을 구성하는 데 있어 주요한 축을 담당했던 무녀가 ‘요망하고, 음란한 야만적 타자’로 고착화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하층의 풍속에 대한 주류 담론의 광범위한 거부감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⁴³⁾ 여기에서 국가 건설, 문명진보

41) 김석죽, <귀신의게 기도햏 | 서 복을 빌지 말고 불상흔 스흐의게 자선을 베풀 일>, 『자선부인회잡지』 창간호, 190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편, 『韓國女性關係資料集: 韓末女性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1)

42) 『자선부인회잡지』에 기고한 김선자의 글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는 기독교를 신앙 혹은 문화적 배경으로 받아들인 여성으로 보인다.

에 역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야만’으로 치부했던 계몽 담론의 주류적 시선을 엿볼 수 있다.

3.3. 공적 영역에 침투한 음란한 계집 - 기생과 삼패

기생과 삼패는 가족 제도의 외곽에 위치한 탈법적 존재이면서도, 일부 일처제를 근간으로 하는 가부장적 가족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모순된 역할을 담당해 왔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재색과 예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공적 영역에서 활동한 여성 집단이었지만, 신분제와 부권 중심의 사회, 주자학적 주류 담론으로부터 모두 소외된 다중적 타자였다. 44) 물론 관기 제도를 법제화한 조선 시대에 기생과 삼패는 전문성과 수행하는 역할에 있어 엄연히 격이 다른 존재였지만⁴⁵⁾, 공히 여성의 재능과 섹슈얼리티를 소비하는 ‘제도화된 매춘’의 한 형태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가의 전례에 참여하는 관변 예인이었던 기생과 민간 오락의 수요에 응하는 예능인 겸 매음부로 취급되었던 삼패는 협률사의 설치 이후 극장 무대라는 동일한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근대적 공간에서 전문 예인으

43) 계몽언론에서는 굿이나 점술 외에 민요, 잡가, 판소리와 같이 하층민이 즐기던 전통적 유희에 대해서도 ‘황탄하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我國의 所爲 演戲라 呼는 것은 毫髮도 自國의 精神的 事相이 無호고 但其淫舞醜態로 春香歌니 沈清歌니 朴僉知니 舞童牌니 잡가니 打令이니 呼는 奇奇怪怪호 浮湯荒誕호 技를 演호며” 『황성신문』 1907년 11월 9일.

44) 박애경, 앞의 글, 221쪽.

45) 조선 후기로 갈수록 관기 출신 기녀와 창기의 역할이 점차 혼란스러워지자 대원군 때에는 기녀 개혁을 단행하여, 화류계의 여성을 관기 출신의 일패(一牌), 속칭 은근짜(隱君子)라 불리던 이패(二牌), 탐암모리라 불리던 삼패(三牌)로 구분하였다. 일패 기생은 관기 출신의 일급 예기인 반면, 탐암모리 혹은 더벅머리로 불리던 삼패는 창기 부류로 매춘집단 혹은 기생의 아류 집단 정도로 인식되었다. 관기와 삼패의 계급적 구분에 대해서는 권도희, 앞의 글. 박애경, 『조선 후기 유희공간과 일탈의 문화』, 『여성문학연구』 14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를 참조할 것.

로 활약하기 시작하였다. 다음 기사는 관기 출신인 기생과 삼패가 함께 무대에 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 금번 청경례식에 기생과 녀령을 불가불 준비홀지라 삼패의 도가를 봉상시 근처로 설치하고 어느 참령이 휴간하야 각처 삼패를 모집하야 노리하는 삼패는 기생을 삼고 노래못하는 삼패는 녀령으로 마련한다더라⁴⁶⁾

(나) 협률사에서 기생 삼패 광디등을 모집하야 희학하야 관광자에게 돈을 받더니 직작일 위시하야 광디는 영영 물시흔지라 관광하는 자가 업는 고로 스무가 덩지되엿다더라⁴⁷⁾

고종 황제의 청경예식을 위해 실시한 관립극장 협률사는 기생과 삼패가 전문 예인으로 공적 영역에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인용문은 국가적 전례를 위해 함께 동원되었던 기생과 삼패가 민간인에게도 오락을 제공하는 예인으로도 기능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기생과 삼패를 바라보는 계몽언론의 시선은 이중적이라 할 수 있다. 위의 기사에서 확인되듯 공적 영역에 진출하여 직무를 행하는 기생과 삼패에 대해서는 사실 전달 위주의 중립적 시선을 견지하고 있다. 다음 기사도 기생의 공적 활동을 ‘사실’ 위주로 게재하고 있다.

(가) 일본 대판 박람회에 대한 기성도 출품물노 같 터인디 직작일에 위션이 명이 인천을 찌나 갔다더라⁴⁸⁾

(나) 일본 산구현 사롭 산본미칠이란 사롭이 대판성년에 죠션료리점이라고 설치하고 대한 기성 오명과 통변 손원식을 고용하야 영업한다더라⁴⁹⁾

46) 『제국신문』 1902년 8월 15일자 잡보 <三牌都家>

47) 『제국신문』 1903년 2월 17일자 잡보 <律社自廢>

48) 『제국신문』 1903년 2월 21일자 잡보 <麗妓渡日>

(다) 본년 삼월 이십일 황상폐하 어극 스십년 진연도감이 되는고로 작일부터 기성들이 도감에 가서 습의하기를 시작하앗다더라 50)

(가)는 1903년 대관 박람회 출품물로 떠나는 기생과 관련한 기사이다. 『제국신문』에서는 대관 박람회가 문명진보를 위해 중요한 전기가 되리라는 기대감을 논설을 통해 이미 피력한 바 있다.⁵¹⁾ (나)는 조선의 기생이 일본에서 요리점을 설치한 기사로, 기생의 활동 영역이 다양화되면서, 공적 영역과의 접촉면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는 전통적인 관변 예인이었던 기생이 근대전환기에도 여전히 국가 전례에 참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의 기사는 기생에게 부과된 전통적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와 (나)의 기사는 근대적 공공 영역에 새롭게 진입한 기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박람회 기사라 할 수 있다. 박람회에 기생을 출품한다는 발상은, 이들이 새로운 시대에도 여전히 사물화된 타자로 물품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기생의 출품은 전통적으로 ‘공가지물(公家之物)’로 취급되었던 기생이 근대적 쇼 케이스로 배치만 바뀐 채, 여전히 공물로 취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생의 공공 영역으로의 진출이 여전히 전통적 잣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근대와 근계의 경계에서 공적 사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대면하기 시작한 기생과 삼패는 ‘동원’되는 존재에 그치지 않고, 집단적 자의식을 구축해나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특히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도 집단적으로

49) 『제국신문』 1903년 3월 11일자 잡보 <五妓賣日>

50) 『제국신문』 1903년 3월 11일자 잡보 <女伶習儀>

51) 『제국신문』 1903년 1월 12일자 논설 <박람회에 물화를 실어 보려는거시 본국상부에 유조함>

참여함으로써, 국민적 주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들이 국민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자, 언론의 논조는 우호적으로 바뀌기도 한다.

근일 국치 상환금 모집하는데 더하야 사름마다 의연금 것어 오는 이가 날노 늘어서 (중략) 약방 기성 삼십구인이 이십여 환을 것어가지고 와서 비록 녀즈중 천인이나 국가의무를 저바릴 슈 업다하니 전휴근경을 숲히건 더 이거슨 인심의 화합함이 안이면 엇지 이 지경에 날으르스며 인심이 화합하고 나라이 흥흥지 않는 자 어디 잇스리오 52)

그러나 기생과 삼패의 공적 활동이 기생과 삼패를 음란한 존재로 규정하고, 음란함을 야만적 산물로 바라보는 계몽언론의 시선까지 바꾸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맛당히 일남일녀가 청결한 덕과 단정흔헝실로 평성을 적희여 빅년을 헝로하고 서시에 경국지식이나 두목지의 남중일식을 엮해 두고라도 눈을 엇보지말고 니의가 다갓치 헝실에 직힘이 올타 흥깃거늘 엇지 방탕 음란하야 룬리를 흐리게 만들니오 우리나라에도 국법이 츠츠 발거지면 각 대도회처에 음란흔 성인흔는 계집들을 한 디방을 허락하야 그 디방에서만 살게하고 츠츠 그폐단을 막아 슈효가 늘치못흥도록 만들녀니와 지금은 괴악흔 계집들을 국중에 상등으로도 디접하며 혹 로성흔 사름도 침혹하니 엇지 더욱 소년들이야 허랑 방탕함을 본밧치 안으리오 일로 인연하야 경향에 총준흔 소년들은 거의 주식잡기에 빠지지 안는자 - 듨은지라 국민의 손히도 이만흔 큰일이 업스려니와 위션 세계각국을 더하야 국제상 손히가 또한 엇지하리오 지금은 일본셔도 히마다 법률을 ()히 마련하야 힘쓰는것이 아모조록 국중에 므음 헝창흔는 더러운 계집이 츠츠 업셔지고 다 학식 잇고 지조잇는 부인네가되여 올흔스업을 힘써 왕화를 찬조흔는 빅성이 되게 흥기를 위쥬로 흥는바 - 어늘 엇지 우리나라는 도로혀 이러툷 권면하

52) 『제국신문』 1907년 2월 25일자 잡보 <國債報償>

야 추흔 계집이 늘며 국중 청년들을 모도 화망의 즈()로 인도흐며 입후 국민의 모친될 너즈들을 모도 이리케 망케만들니오 츠츠 이런풍속도 업서져야 흐깃고 이런너즈도 업서져야 흐려니와 특별히 소년동포들을 권흐노니 음란한 화류마당을 갖가히 말지어다 53)

이 글에서는 화류계 여성을 ‘괴악한 계집’이라 하여 싸잡아 음란한 존재로 규정하며, 이들의 거주지를 제한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조선에 유곽(遊廓)의 도입을 피하고, 삼패와 매음부의 위생검진을 통해 화류계 여성을 통제하려 했던 일제의 의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⁵⁴⁾ ‘괴악한 계집을 국중에 상등으로 대접한다’는 대목에서는 기생과 삼패가 활동 영역을 차차 넓혀가는 데 대한 불편한 심기가 엿보이기도 한다.

이들은 화류계 여성을 법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풍속의 괴란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주장은 궁극적으로 남녀 공히 음행을 중지하고, 건전한 국민의 일원이 되자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기생, 삼패와 같은 화류계 여성이 국민화에 장애가 되는 존재라는 것은 다음의 짤막한 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금일 삼피 노리에 었던 자가 빅미 팔석을 보쥬흐며 부족흐면 통지흐난 디로 더 보니마 흐얏다 하니 그 사름은 계집 스랑흐기를 나라스랑 흐난것 보다 더 흐계 녀이난 모양이더라 55)

53) 『제국신문』 1903년 1월 24일자 논설 <음란흔거시 사름의 큰죄>

54) 일제가 유곽 설치를 피하고, 삼패와 매음부의 성병검진을 실시한 표면적 이유도 풍속문란을 방지한다는 것이었다. 일제의 공창제 도입과 창기 단속에 대해서는 권도희, 앞의 글. 송연옥, 『대한제국기의 <기생단속령> <창기단속령>』, 『한국사론』 40권,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8.을 참조할 것.

55) 『제국신문』 1906년 8월 16일자 잡보 <熱心賞花>

요컨대 이 시기 계몽 지식인들은 공연이나 박람회 참여 등 공적 활동을 통해 국민된 자의 의무를 최소한이나마 행하는 기생과 삼패에게는 사실 전달 위주의 중립적 자세를 보이고, 국채보상 운동에 참여할 때에는 우호적 논조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국민적 통합이나 건전한 풍속의 진작에 위협 요소가 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가차 없이 비판을 하는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⁵⁶⁾ 이중적 자세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건전한 국민을 상정한 바탕 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가치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류계 여성에게까지 국민의 의무를 부과하려 했던 계몽 지식인의 기획은 자유로운 공적 활동을 보장받고,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기생과 삼패에게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천출의 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기생 죽엽이 『대한매일신보』에 기고한 <론개학>이라는 작품은, 이들이 의무를 제공하기 위해 불렀던 흥타령 조의 시가 속에 국민의 일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화류계 여성의 집단적 욕망을 담아내고 있다.

십년 검무 호응 배운 뜻은 흥 축석루 노름을 기드림이라 아 어리화 도타
호응 닥치는 디로 흥 ⁵⁷⁾

음란한 존재로 낙인 찍혔던 여성이 자발적으로 국민의 의무를 수용하고, 국채보상운동에까지 참여했던 데에서, 사회적 승인에 대한 이들의

56) 나라 일에 성공하고, 동포에게 생색하면 창기라도 일등 여자가 될 수 있다는 『대한매일신보』의 1909년 8월 2일자 <사사평론>, 논개나 세월을 본받지 못하고 <흥타령>이나 부르며 비루 잡년의 패를 면하지 못하는 여성은 가련한 매음녀일 뿐이라는 『대한매일신보』 1909년 3월1일자 <사사평론>은 화류계 여성 역시 국민화 기획에 동원하고자 했던 계몽언론의 시선이 보인다.

57) 『대한매일신보』 1909년 3월 19일자 <론개학>

욕망을 읽을 수 있다.⁵⁸⁾ 면천을 통해 관비 신분에서 벗어나 전문 예인의 자격으로 공적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들은 공익적 활동과 국가적 대사에의 참여를 통해 국민의 의무를 기꺼이 수용해왔던 것이다. 요컨대 이들은 남성들이 주조한 계몽담론에 포섭되었지만, 이를 통해 자신들의 집단적 자의식을 구축해갔던 것이다.

4. 나오는 말

이 글에서는 근대 전환기 상이한 지위와 처지의 여성 집단에게, 문명의 가치와 국민적 정체성이 강제되고, 내면화되는 과정을 살피기 위해 여성 관련 담론의 일반적 경향을 살피고, 『제국신문』을 중심으로 여성 소수자가 근대전환기 언론 매체에서 다뤄지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첩, 무녀, 기생와 삼패 등 여성 소수자 집단은 전통적으로 가족 질서의 외곽에 놓인 ‘음란한 존재’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관련한 담론은 근대 전환기 풍속개량 담론, 성 담론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 소수자 관련 담론은 젠더의 문제와 계층의 문제가 중첩되는 문제적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과거에도 주류적 담론으로부터 소외된 소수자 집단이었다는 점에서 신·구 문화의 가치가 혼재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근대 전환기 신문에 나타난 여성 관련 담론은 기본적으로 매체를 주도한 남성 중심, 지식인 중심, 서구적 가치 추종의 시각을 보여준다. 여성 소수자에 대한 담론 역시 이러한 구도에서 그리 벗어나 있지 않다. 그런데 이들이 야만적 타자로 고착되는 과정에서 정(貞)과 음(淫)의 이분법이 예외 없이 작동하는 데에서 보이듯, 내적으로는 신구의 가치가

58) 시대는 다르지만 정절의 의무가 없는 기생이 열행을 수행함으로써, 주류적 담론의 인정을 받으려 시도했던 것 역시 ‘사회적 승인에 대한 욕망’의 발로로 보인다.

착종되거나 혼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국신문』에서는 문명진보와 국가 건설에 참여하는 선별된 여성 소수자에 대해서는 포섭의 태도를 취했지만, ‘미신타파’라는 풍속개량 운동의 핵심적 표적이 된 무녀는 범죄자로 못을 박아 ‘국민될 의무와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여성 젠더 포섭/배제의 원리는 『제국신문』 뿐 아니라, 여성의 국민화, 문명화 기획을 도모했던 계몽 언론이 공유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는 근대전환기 남녀동등권이 개인의 권리를 신장하고, 여성의 공적 참여를 보장받는 기회로 삼고자 했던 여성들의 열망과는 달리, ‘국가와 민족’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귀결된 저간의 사정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제국신문』 1898년 8월~1902년 12월 (아세아문화사 영인)
- 『제국신문』 1903년 1월~1903년 6월, 1904년 3~6월, 1904년 9월~12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제국신문』 1905년 12월~1907년 5월 14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DB (<http://www.history.go.kr>)
- 독립기념관 고신문 DB (<http://www.independence.or.kr>)
- 고미숙·강명관 편, 『근대계몽기시가지자료집』, 대동문화연구원 편, 2000.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편, 『한국여성관계 자료집: 근대편 상·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9, 1980.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편, 『한국여성관계 자료집: 한말 여성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1.

2. 단행본

-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 민족·섹슈얼리티·병리학』, 책세상, 2001.
- 이숙인, 『유가의 몸담론과 여성』, 여성철학회 편, 『여성몸에 대한 철학적 성찰』, 철학과 현실사, 2000.
- 이숙인, 『열녀담론의 철학적 배경 - 여성 섹슈얼리티의 문제로 보는 열녀』,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편,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1.
- 전미경, 『근대계몽기 가족론과 국민 생산 프로젝트』, 소명출판, 2004.

2. 논문

- 고은지, 『개항기 계몽담론의 특성과 계몽가사의 주제 표출양상』, 『우리어문연구』 18집, 우리어문학회, 2002, 219~256쪽.
- 권도희, 『20세기 관기와 삼패』, 『여성문학연구』 16호, 81~120쪽,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81~120쪽.
- 길진숙, 『『독립신문』. 『미일신문』에 수용된 ‘문명/야만’ 담론의 의미 층위』, 『국

- 어국문학』 136호, 국어국문학회, 2004, 321~353쪽.
- 김복순, 「근대 초기 모성담론의 형성과 젠더화 전략」,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13~51쪽.
- 박애경, 「기생-가부장제의 경계에 선 여성들」, 『여/성이론』 4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1, 220~233쪽.
- 이경하, 「제국신문 여성독자투고에 나타난 근대계몽담론」, 『고전여성문학연구』 8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67~98쪽.
- 이형대, 「근대 계몽기 시가와 여성담론」, 『한국시가연구』 10집, 한국시가학회, 2001, 277~301쪽.
- 이형대, 「풍속 개량 담론을 통해 본 근대계몽가사의 욕망과 문명의 시선」, 『고전과 해석』 창간호, 고전한문학연구학회, 2006, 7~34쪽.
- 정지영, 「조선 후기의 첩(妾)과 가족질서 - 가부장제와 여성의 위계」, 『사회와 역사』 65집, 한국사회사학회, 2004, 6~40쪽.
- 조은·조성윤, 「한말 서울 지역 첩의 존재 양식- 한성부 호적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5집, 한국사회사학회, 2004, 74~100쪽.
- 최기영, 『〈태국신문〉 연구』, 언론학논선. 3, 서강대학교언론문화연구소, 1989.
- 홍인숙, 「근대계몽기 女性談論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6.

Abstract

Women Minority Groups as the symbol of savageness
- Centering around the discourses on the concubine, female
shaman and prostitute shown in
“Cheguk Sinmun (The Journal of Empire)”

Park, Ae-kyung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quire the discourses on the women minority groups including the concubine, female shaman and prostitute shown in “Cheguk Sinmun (The Journal of Empire)” to analyze the aspects of how the women have been placed and differentiated within the discourses of enlightenment. Through dealing with the theme, we could examine the status and role of the women who were alienated from the discourses of enlightenment in the early modern period and confirm the fact that the discourses of enlightenment were activated differently within the diverse women groups. The women minority groups were treated as the vulgar object who ran counter to the civilizing project by the enlightenment intellectuals. This kind of tone was shared among the enlightenment journals of that period such as “Dokrip Sinmun”, “Hwangsung Sinmun” or “Daehan Maeilsinbo” which was published afterward. Basically the view toward the women minority groups was the product of ‘being nation project’ and ‘civilizing project’ cause the enlightenment intellectuals who led the journalism made the sexuality and customs into the object of regulation and reformation. This paper tried to observe the differences within the discourses on

the enlightenment which were classified by the gender, class and media and the gap between the old and new intelligences. The discourses on the women minority groups illustrate the proper case to inquire the interactions within the discourses of enlightenment judging from the process by which the traditional minority groups were transformed into the savage object as well as the disclosure of differences among diverse women groups. Furthermore, the discourses on the women minority groups will provide with the opportunities to look into the differences among diverse women groups to those who have regarded the women as same one subject.

Key words : Chekuk Sinmun (The Journal of Empire), Discourses of enlightenment, Women's education, Civilization and Savageness, Women minority groups, Nation

■ 본 논문은 4월 15일에 접수되어 5월 23일에 게재 확정되었음.